

다문화 대안학교 개교 무산 논란

새날학교 “16개국 100여명 학생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교육청 “학교설립보다 적응교육 시켜 공교육 편입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공립 대안(代案)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계획했던 3월 개교가 물건너 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설립을 적극 추진했던 광주시교육청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초·중·고교 3개년 전 과정을 운영하는 별도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단기 교육과정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이다.

◇공립 대안학교 개교 무산= 지난 28일 ‘새날학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공립학교 인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초 계획했던 3월 개교가 무산됐다.

폐교를 고쳐 만든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 소재 새날학교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 때문에 국내 일반 학교에서 적응이 쉽지 않은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자, 새터민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월 광주에 처음 문을 열었다.

지난 28일 현재 새날 학교에는 16개국 100여명의 학생이 배움의 열정을 이어가고 있으며 30여 명의 교사 자원봉사도 일하고 있다.

그러나 미인가 학교여서 학생들이 학력을 인정받지 못해 대학진학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교육청은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3월 대안학교 인가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은 “교과부도 공립형 대안학교의 취지가 좋다고 판단해 인가를 내줘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학교 설립 신중해야 = 시교육청이 설립을 추진했던 공립 대안학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공교육의 틀에 포함시켜 교육복지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별도 학교를 설립하면 이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론을 주목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자녀와 비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함께 교육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사회 성원이 될 수 있는 교육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정식 교과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보다는 부적을 학생들에 대한 단기 적응교육을 시켜 공교육 과정에 편입하는 교과과정의 필요성도 있는 만큼 면밀한 여론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날학교에 대한 공립학교 인가가 늦춰진 배경이다.

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다문화가정 단체 등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학교의 설립 타당성, 교과 과정 운영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공교육에서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교육 효과 높은 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간호사 과실 신생아 뇌손상 병원에 3억여원 배상 판결

간호사의 과실로 신생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광주의 한 병원에 대해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5부는 지난 28일 조모(5)군의 부모가 광주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총 3억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생아는 수유 후 30분 이상 지난 뒤 주사 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도 병원 측이 분유를 먹인 지 10분 만에 정맥주사를 놓아 호흡정지와 이에 따른 뇌손상을 입혔다”며 “병원 측은 12억5400여 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구타 영향? 의경지원 확 줄었다

광주·전남 올 49명 그쳐 ...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44% 급감

최근 불거진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여파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의무경찰 지원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월 2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의무경찰을 모집한 결과, 총

49명(광주경찰청 24명·전남경찰청 25명)이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명)보다 43.6%(38명) 감소한 수치다. 최근 석 달간 의무경찰 지원자 수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월별로는 ▲지난해 12월이 130명 ▲1월이 91명 ▲2월이 49명 등이다.

지원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최근 신임 전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사고가 잇따르면서 심리적 불안은 느낀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기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이 최근 시행한 신임 전의경 대상 소원수리 결과 전국적으로 365명이 신임 대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광주는 후임 전의경 7명이 신임 대원 6명으로부터, 전남은 전의경 42명이 신임 45명으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광주·전남에서 총 4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전·의경 가혹행위 여파로 인한 사회분위기가 의무경찰 모집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의경 지원율은 월별 편차가 심한 만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인혜 서울대 교수 파면

제자 폭행 등 의혹 ... 징계위 “사유 추후 공개”

서울대는 지난 28일 징계위를 열어 제자 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인혜 음대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전 11시 교내 SK 게스트하우스에서 징계위원 9명이 모인 가운데 7시간에 걸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박명진 서울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징계위가 끝나고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 회의 결과 파면으로 결정이 났다. 총장에게 보고한 뒤 최종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회의 내용을 정리해 추후 자세한 징계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이날 의혹 소명을 위해 변호인과 함께 징계위에 출석했으며 오후 2시에 귀가하면서 기자들에게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는 진정을 지난해말 접수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으며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했다.

김 교수는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의 비위 의혹을 받았으나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편의점서 일하는 여고생 친구들과 함께 금고 탈이

광주서부경찰청은 지난 28일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돈을 훔친 광주 모 고교 3년 김모(여·18)양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지난 21일 오전 8시에 광주시 서구 화정동 박모(여·41)씨의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 10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교육정보원·동부교육청 압수수색

경찰, 남품·공사비리 수사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8일 교육계 자체 남품과 공사 수수 비리와 관련해 광주교육정보원과 동부교육지원청 등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광주교육정보원·동부교육지원청에 수사관을 보내 교육 자체 남품 서류와 공사 입찰서류 등 각종 장부를 압수했다.

경찰은 학교 공사와 관련해 일부

교육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부경찰청은 지난 27일 정수기 남품비리와 관련, 설치업자 이모(67)씨와 광주지역 중·고교 행정실장 3명을 각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는 한편, 이씨가 정수기를 남품한 학교 30~40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낮엔 환자 밤엔 택시기사’ 50대女 징역형

보험금 1500만원 부당수령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8일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모(여·58)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원 기간 중 택시 가스 충전 및 신용카드 사용

현황, 병원 외박·외출 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험사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4년 3월 27일에 광주시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몰고 가다 가벼운 추돌사고를 당하고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등 14차례에 걸쳐 총 1500여만원에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사에 ‘단비’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지난 28일 담양군 봉산면 마늘밭에서 한 농민이 비료를 뿌려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편 농약살해 기도

신안 40대 女 구속

목표경찰은 지난 28일 물병에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하려 한 김모(여·4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신안군 압해면 자신의 집 부엌에 있던 남편(49)의 물병(1.6ℓ)에 농약 1통(500ml)을 넣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남편은 다음 날 자신이 일하는 열전에서 이 물을 마시고 쓰러졌으나, 동료에게 발견돼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남편이 열전에 일을 하러 나갈 때면 항상 집에서 물을 챙기는 점을 노려 범행을 계획했으며, 8년 전 재혼한 남편이 부부싸움 후 재산분배와 이혼을 요구하자 집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물병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물병에 있는 지문과 농약 구입사실 등을 토대로 당시 집을 간간 부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검거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에서 “물병에 농약을 탄 것은 사실이나 내가 음독하려 했을 뿐 남편을 살해할 뜻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참견 마” PC방서 구경꾼 폭행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던 30대가 자신의 게임에 참견했다는 이유로 옆자리에 있던 손님을 폭행해 경찰서행.

○~지난 2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남모(30)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1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PC방에서 자신이 게임하는 것을 구경하던 공모(30)씨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이날 포커 게임에 몰입해 있던 중 처음 본 공씨가 한참동안 자신의 뒤에 서서 게임에 간섭한 것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는데, 경찰에서 “게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카드 내라’, ‘저 카드 내라’며 귀찮게 하길래 화병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3급 공무원 시험 [쑈쑈쑈] 최다 합격! 최강 퍼펙트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리보십시오

7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8:00 (2개월 완성)

9급 종합반 (이론)
행정, 세무, 경찰, 교육행정, 교정직, 사법직, 농업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필독수업 개강

9급 문제풀이
행정직/세무직/교육행정직/경찰직/교정직
강의시간 : 09:00 ~ 14:00 (4주 완성)

법원/검찰직
강의시간 : 09:00 ~ 19:20 (2개월 완성)
노량진 유명강사진 총출동!

9급 야간반
강의시간 : 19:00 ~ 22:00 (3개월 완성)
대학재학생, 직장인을 위한 공무원 합격 총합반

농업직/기술직
강의시간 : 09:00 ~ 15:30 (2개월 완성)
4년 연속 농업직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명품 "강력단과"
영어, 국사, 행정학, 행정법, 국어, 헌법, 회계학, 경제학, 교육학
강의시간 : 15:30 ~ 18:30 (2개월 완성)

월별 소방직 (전문)
시험장과 동일, 체력측정기 도입
강의시간 : 09:00 ~ 17:00 (2개월 완성), 매일 필독수업 개강

최다수강생
최다합격률
최고의시설
최강교수진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227-8088
전남대 북구청 앞 (062) 252-0252

개강
매월
1일